

2016 미소 강경욱 선생의 사회복지직 해설

1. 밑줄 친 단어에 가장 적절한 한자는?

나는 구청의 담당자에게 연유를 설명하고 서류를 찾아와서 서류 내용을 정정해야만 했다.

- ① 訂正
- ② 正定
- ③ 正丁
- ④ 正正

답) ①. [난이도 중, 한자] - 예상한 문제 유형

訂正(정정):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음.

- ② (불교) 팔정도의 하나. 번뇌로 인한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안정하는 일.
- ③ 직접 군역(軍役)에 나가는 사람.
- ④ 바르고 가지런함.

2. 의미가 다른 한자어는?

- ① 면종복배(面從腹背)
-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 ③ 구밀복검(口蜜腹劍)
- ④ 소리장도(笑裏藏刀)

답) ②. [난이도 중, 한자성어] - 예상한 문제 유형

부화뇌동(附和雷同): 좃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 ①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 ③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 ④ 웃는 마음속에 칼이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마음속에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음을 이르는 말. ≡ 소리장도 · 소중유검 · 소중유도.

3.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춘천 - Chuncheon
- ② 밀양 - Millyang
- ③ 청량리 - Cheongnyangni
- ④ 예산 - Yesan

답) ②. [난이도 하, 한자성어] - 예상한 문제 유형

[미량]으로 발음된다. 'Miryang'로 적어야 한다.

4.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거기에 어떻게 갈지 결정하지 못했다.
- ② 이미 설명한바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③ 은연 중에 자신의 속뜻을 내비치고 있었다.
- ④ 그 빨간 캡슐이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입니다.

답) ③. [난이도 중, 띄어쓰기] - 예상한 문제 유형

‘은연중’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중’은 주로 ‘가운데’나 ‘동안’의 의미일 때 띄어 쓴다.

5. 어법상 옳은 것은?

- ①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② 고객님, 주문하신 물건이 나오셨습니다.
- ③ 어른들이 문자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 ④ 이어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답) ①. [난이도 하, 국어규범] - 예상한 문제 유형

- ② 고객님, 주문하신 물건이 나왔습니다.
- ③ 어른들이 문자 안절부절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 ④ 이어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6.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것다.
 이 비 그치면
 시새워 빙글어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香煙)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것다.

- 이수복, '봄비'

- ① 비유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② 3음보의 변형 민요조 율격을 지니고 있다.
- ③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④ 주관을 배제한 시각으로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답) ④. [난이도 중, 현대시] - 예상한 문제 유형

봄비가 그치면 더욱더 봄의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마음을 노래했다. 근본적으로 서정시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다.

미소 내공

- ▶ 운율: 3음보의 율격, 두운과 각운
- ▶ 시상 전개: '내 마음 강나루'에서 시작하여 '보리밭길, 꽃밭, 들판' 등으로 시야가 확대되면서 애상적 정서가 승화됨.
- ▶ 성격: 낭만적, 관조적, 심미적, 상징적
- ▶ 제재: 봄비
- ▶ 주제: 봄비 내리는 날의 애상적 정서
- ▶ 구성: 점층적 구성
- ▶ 작품 해제

시인은 겨울잠에서 막 깨어나려는 봄을 전통적 율조에 맞추어 예찬하고 있다. 봄비가 대지를 적서 주면 겨울내 웅크렸던 생명의 씨앗들은 비로소 기지개를 편다. 시인은 이러한 봄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 속에서 상상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시어와 '강나루' → '보리밭길' → '꽃밭' → '들판'으로 시선을 확대시키면서 봄의 생명력을 노래한다. 또 '것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전달하고 있다.

이 시가 봄의 생명력을 예찬하는 작품이면서도 전통적 애상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봄은 시적 화자에게 그리 즐거운 것이 아니다. 마음이 슬플 때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아도 더 서러워지는 것. 그러나 시인은 슬픔에 젖어만 있지 않는다. 봄의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승화시키고 있다.

7. 밑줄 친 표현에서 주로 나타나는 언어적 기능은?

나를 전 감자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뽕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농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 김유정, '동백꽃' 중에서

- ① 미학적 기능
- ② 지령적 기능
- ③ 친교적 기능
- ④ 표현적 기능

답) ③. [난이도 하, 언어의 기능] - 예상한 문제 유형

인사말이고 관심의 표현이다.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윤활유와 같은 기능을 한다. '친교적 기능'에 해당한다.

8. 다음 글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삼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무에 어째 공연한 일이란 말이냐?”

부친의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길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이 물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난봉 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험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는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해 보기는 처음이다.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룻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성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 염상섭, '삼대' 중에서

- ① 논리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밝히고 있다.
- ②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약점을 비유적으로 돌려 말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약점을 들어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답) ④. [난이도 중, 현대소설] - 예상한 문제 유형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에서 알 수 있다. 상훈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으로 일종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말하기다.

미소 내공

- ▶ 갈래: 장편 소설. 세태 소설. 사실주의 소설. 가족사 소설(역사의 변화 속에 있는 한 가족의 융성과 몰락의 과정을 서술하는 소설)
- ▶ 배경: 시간(일제 식민지 시대인 1930년대). 공간(서울 중산층의 집안)
-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 성격: 회장식(回章式: 전 42장)
- ▶ 구성: 5단 구성
 - ㉠ 발단 - 유학생 덕기가 방학 차 다니러 왔다가 떠나며 조부, 아버지의 첩, 병화 등이 등장
 - ㉡ 전개 - 집안의 뒤엉킨 인간관계를 알게 되는 덕기
 - ㉢ 위기 - 조의관의 위독과 수원집의 몰락
 - ㉣ 절정 - 조의관의 사망 후 집안의 갈등 심화. 어수선해진 사회 환경으로 주요 인물 피검
 - ㉤ 결말 - 덕기는 무혐의로 풀려나 앞으로 살 방도를 모색
- ▶ 주제: 일제 강점기 중산층 가문의 현실 대응과 몰락

9. 밑줄 친 단어들의 시대적 상징성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구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일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럴것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두.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독을 싣아 놓구,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뭣 땀예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위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황석영, '삼포가는 길' 중에서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답) ①. [난이도 중, 현대소설] - 예상한 문제 유형

산업화로 고향이 파괴되고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은 ‘도자’, ‘방독’, ‘트럭’ 등이다. ‘하늘’은 사람의 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미소 내공

- ▶ 갈래: 단편 소설. 여로 소설
- ▶ 배경: 시간(1970년대). 공간(삼포로 가는 길)
- ▶ 성격: 사실주의적
-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 구성
 - ㉠ 발단 - 정치 없이 길을 나선 영달이 삼포로 가는 정씨를 만나 동행이 된다.
 - ㉡ 전개 -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월출로 향해 가던 중 백화를 만나 동행이 된다.
 - ㉢ 절정 -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느껴 자기 고향으로 가자고 제안하나 응하지 않는다.
 - ㉣ 결말 - 삼포에 공사판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씨는 발길이 내키지 않는다.
- ▶ 주제: 고향 상실과 소외의 쓸쓸한 삶.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하고 떠돌아다니는 뜨내기 인생의 애환

10.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상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모든 역사가들에게 똑같은, 말하자면 역사의 척추를 구성하는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이 있다. - 예를 들면 헤이스팅스(Hastings) 전투가 1066년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로, 역사가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대전투가 1065년이나 1067년이 아니라 1066년에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스트본(Eastbourne)이나 브라이턴(Brighton)이 아니라 헤이스팅스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역사가는 이런 것들에서 틀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제기될 때 '정확성은 의무이지 미덕은 아니다.' 라는 하우스먼(1859~1939, 영국의 시인이자 고전 학자)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어떤 역사가를 정확하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은 어떤 건축가를 잘 말린 목재나 적절히 혼합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과 같다.

- ① 역사적 사실은 역사 서술의 기초가 된다.
- ②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역사가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 ③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은 역사가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이다.
- ④ 역사가들에게는 역사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이 있다.

답) ②. [난이도 중, 읽기] - 예상한 문제 유형

시기의 정확성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역사가의 의무지 미덕은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은 시기의 정확성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것이지 정확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1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요즘 앞산에는 진달래가 한참이다.
- ② 과장님, 김 주사의 기획안을 결제해 주세요.
- ③ 민철이는 어릴 때 일찍 아버지를 여위었다.
- ④ '가물'에 콩 나듯' 이라더니 제대로 싹이 난 것이 없다.

답) ④. [난이도 하, 맞춤법] - 예상한 문제 유형
'가뭇' 과 '가물' 은 복수 표준어다.

- ① **한창**: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때.
- ② **결재(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재가04(裁可)' 로 순화.
- ③ **여의다**: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별하다.

12. 다음 중 표기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영희는 공부를 하느라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세웠다, 새웠다).

ㄴ. 네 동생은 우리가 (닥달해, 뉘달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 | | |
|-------|-----|
| ㄱ | ㄴ |
| ① 세웠다 | 뉘달해 |
| ② 새웠다 | 닥달해 |
| ③ 세웠다 | 닥달해 |
| ④ 새웠다 | 뉘달해 |

답) ④. [난이도 하, 맞춤법] - 예상한 문제 유형

- 새우다: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
- 뉘달하다: 남을 단단히 으박질러서 혼을 내다.

13. 표준 발음에서 축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 ① 놓치다
- ② 헛웃음
- ③ 똑같이
- ④ 달히다

답) ④. [난이도 하, 표준발음] - 예상한 문제 유형

[다치다]: ㄷ과 ㅎ이 축약되어 'ㅌ' 이 되고 다시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 ① [놓치다]: 대치
- ② [허두숨]: 대치
- ③ [똑까지]: 된소리 되기(첨가), 구개음화(대치)

14. 다음 중 종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 ① 정수가 흰 바지를 입고 있다.
- ② 미희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 ③ 김 선생님이 간호사와 입원 환자를 둘러보았다.
- ④ 모든 소녀들은 좋아하는 소녀가 한 명씩 있다.

답) ④. [난이도 중, 올바른 문장] - 예상한 문제 유형

- ① 진행의 개념인지 완료의 개념인지 모호하다. 흰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흰 바지를 이미 입은 경우 일 수도 있다.
- ② 미희가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친구들이 미희를 보고 싶어하는지 모호하다.
- ③ 김 선생님이 간호사와 함께 입원 환자를 둘러보았는지, 김 선생님이 간호사도 둘러보고 또 환자들도 둘러보았는지 모호하다.

15. 밑줄 친 ‘고’ 와 한자가 같은 것은?

구민들의 고충(苦衷)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① 과거에는 신문고를 이용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곤 했다.
- ②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계속된다.
- ③ 그 방송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과소비의 실태에 대한 고발인 듯했다.
- ④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답) ②. [난이도 중, 한자] - 예상한 문제 유형 고민(苦悶)

- ① 신문고(申聞鼓)
- ③ 고발(告發)
- ④ 숙고(熟考)

16. 밑줄 친 단어와 품사가 같은 것은?

쓰러져 가는 집에서 늪은 아버지가 홀로 기다리고 계셨다.

- ① 저 기차는 정말 번개처럼 빠르네.
- ② 박사는 이제 그를 조수로 삼았네.
- ③ 산나물은 바다의 미역과 다르겠지.
- ④ 걸모습보다 마음이 정말 예뻐야지.

답) ②. [난이도 중, 품사] - 예상한 문제 유형 동사의 관형사형이다. 즉 품사는 ‘동사’ 다

- ① 형용사
- ③ 형용사
- ④ 형용사

17. ‘훈민정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민정음(訓民正音)’ 이란 문자의 이름인 동시에 그 문자를 설명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 ② 문자로서의 ‘훈민정음’ 은 유네스코(UNESCO)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③ ‘훈민정음 해례본’ 은 한글의 음가와 제자 방법, 한글의 사용 방법 등을 한자로 적은 책이다.
- ④ 치두음(齒頭音)과 정치음(正齒音)에 대한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 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답) ④. [난이도 상, 고전문법] - 예상한 문제 유형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돼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됐다. 즉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아닌 ‘세계 기록문화유산’ 이 옳다.

미소 내공

- 기록문화유산: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 일기(2001), 조선왕조의궤(2007),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2011)
- 지정 세계문화유산: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석굴암·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경주역사 유적 지구(2000), 고인돌 유적(2000), 조선시대 왕릉 40기(2009), 안동 하회마을·경주 양동마을(2010)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가 어려서 최초로 대면한 중국 음식이 자장면이고 (자장면이 정말 중국의 전통적인 음식인지 어떤지는 따지지 말자.), 내가 맨 처음 가 본 내 고향의 중국집이 그런 집이고, 이따금 흑설탕을 한 봉지씩 싸 주며 “이거 먹어해, 헤헤헤.” 하던 그 집주인이 그런 사람이어서, 나는 중국 음식이라면 우선 자장면을 생각했고 중국집이나 중국 사람은 다 그런 줄로만 알고 컸다.

...(중략)...

그러나 적어도 우리 동네와 내 직장 근처에만은 좁고 깨끗지 못한 중국집과 내 어리던 날의 그 장궤(掌櫃) 같은 똥똥한 주인이 오래오래 몇만 남아 있었으면 한다.

-정진권, ‘자장면’ 중에서

- ①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 ② 기억을 중심으로 편안하게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소박함과 정겨움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을 의인화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이끌어 내고 있다.

답) ④. [난이도 하, 수필] - 예상한 문제 유형

대상을 자장면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의인화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대상을 중국집 주인로 봐도 원래 사람이므로 의인화했다고 할 수는 없다.

19. 논리 전개에 따른 (가)~(라)의 순서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십 세기 한국 지식인의 지적 행위는 그들이 비록 한국인이라는 동양 인종의 피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그러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가) 그러나 그 역방향 즉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행위는 실제적으로 부재해 왔다. 이러한 부재 현상의 근본 원인은 매우 단순한 사실에 기초한다.

(나) 동양이 서양을 해석한다고 할 때에 그 해석학적 행위의 주체는 동양이어야만 한다.

(다) ‘동양은 동양이다.’ 라는 토틀러지(tautology)나 ‘동양은 동양이어야 한다.’ 라는 당위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양인인 우리가 동양을 알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우리는 동양을 너무도 몰랐다. 동양이 왜 동양인지, 왜 동양이 되어야만 하는지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동양은 버려야 할 그 무엇으로서만 존재 의미를 지녔다. 즉, 서양의 해석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서양을 해석할 동양이 부재했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나) - (다) - (라) - (가)
- ③ (다) - (라) - (가) - (나)
- ④ (라) - (가) - (나) - (다)

답) ①. [난이도 중, 문장의 순서] - 예상한 문제 유형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려는 행위의 부재(가) - 해석의 주체는 동양(나) - 동양인이 동양을 알아야 한다(다) - 동양을 너무도 모르는 우리(라)’ 순이 자연스럽다.

20.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 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所有)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 ① 소유의 역사(歷史)는 이제 끝났다.
- ② 소유욕은 불가역적(不可逆的)이다.
- ③ 소유욕은 이해(利害)와 정비례한다.
- ④ 소유욕이 없어진 세상이 올 것이다.

답) ③. [난이도 중, 수필] - 예상한 문제 유형

‘그것은 오로지 소유(所有)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를 참조하면 된다. 즉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가 적절하다.

총평 : 2016년 사회 복지직 국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공부한 학생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국어규범과 관련된 것이 작년과 같이 9문항 출제되었다. 음운현상, 언어예절, 맞춤법, 자연스러운 문장 등 전 영역에서 고르게 나왔는데, 훈민정음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다. 국어 규범과 관련된 문제는 수험생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영역이므로 앞으로도 아주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다.

읽기는 2문제가 출제되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 1문제가 줄었다. 지문은 평이했고, 문장의 순서를 잡는 문제 유형은 많이 연습한 것이므로 침착하면 맞힐 수 있었을 것으로 사려된다. 이 영역은 평소에 생소한 지문을 지속적으로 읽는 습관이 필요함을 다시 밝혀 둔다.

문학은 현대시와 현대소설 수필 등 6문제가 출제되었다. 이것은 작년보다 비중이 많아진 것인데, 소설이 3개나 출제된 것은 눈에 띈다. 작품은 대부분 수업시간에 다룬 것이라 체감 난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문학의 기초감상법을 중심으로 학습한다면 앞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어휘는 3문제로 작년보다 1개가 줄었다. 한자랑 한자성어가 출제되었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어휘는 다음 시험에서 어떤 것이 출제될지 정확하게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험생은 시간 나는 대로 어휘량을 늘려 두는 학습 전략이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16년 사회 복지직 국어는 전체적으로 체감 난도가 낮았던 시험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도 상은 1문제, 중인 문제가 12문제, 난도 하인 문제가 7문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난도는 작년과 같은 난도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국어 점수는 90점 정도는 획득해야 하는 시험으로 분석된다.